

월요광장

축제의 계절에 지역축제를 생각하다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축제라 되어버린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전통적 의미의 축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자연을 극복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기능적 도구로 전락해 버린 오늘날, 과거 지향의 축제는 현대인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한 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등장한 이래로 지구상에서 벌어진 제 의적(ritual) 축제는 21세기의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탈근대의 신인류가 살아온 환경은 근대를 무대로 살아온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의 환경과 다르다. 하이퍼링크(hyperlink)로 연결된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은 실시간 반응하고 멀티태스킹(Multi tasking)에 익숙하다. 따라서 신인류의 관심을 축제로 유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 콘텐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인간의 의례적 활동이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통합을 바라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축제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homo socies)을 보여주는 행사인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원주민과 같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광기의 인간(homo demens)이 너무 많다.

도시공간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그림에도 인간의 유희적 속성(homo ludens)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축제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 즉 디오니소스적 속성을 찾아내서 콘텐츠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축제를 점검해 본다면,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는 충장로가 번성하였던 '70·80년대의 추억'을 중심 테마로 시작한 축제다. 충장축제는 1970~80년대에 충장으로 누웠던 70·80 세대에게 추억을 선물함으로써 공감을 얻었다. 매회 진화하는 충장축제에서 눈여겨 볼 것은 '거리 퍼레이드'다. 이러한 시도는 충장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시급성이 될 것이다.

10년 전에 충장축제가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던 70·80세대는 이미 은퇴했다. 떠오르는 40대와 50대의 참여는 물론 신인류로 불리는 20·30대를 유인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충장축제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세계의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비전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거리퍼레이드를 통해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축제는 인간의 디오니소스적 세계가 유희 본능과 만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가장행렬과 같은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난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의 대표적 행사인 카니발이 성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니발은 인간이 가진 아폴론 세계관과 디오니소스 세계관의 이율배반적 속성(homo duplex)을 마음껏 발산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카니발의 현장은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체험은 일상에 찌든 현대인에게 짜릿한 일탈의 기쁨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카니발은 인간의 놀이 본능, 즉 축제의 본질에 매우 충실한 축제

라고 할 수 있다. 충장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본질을 세계인과 신인류의 취향에 맞게 콘텐츠화 해야 한다. 거리 퍼레이드를 스토리를 가진 행사로 전환하여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homo narrans)을 자극해야 한다. 이것이 거리퍼레이드를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이며 독창적인 충장축제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2015년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아시아 문화전당도 개관된다. 이러한 행사들은 '충장축제'가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충장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남녘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특히, 풍요로운 산과 들, 가을 바다의 넉넉함은 충장축제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충장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 되려면, '추억'을 매개로 신·구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인을 불러들여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함과 품격을 더해가는 '충장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社說

중국어선 불상사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불법조업 단속에 격렬히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진압 과정에서 해경이 쓴 권총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해경의 단속 중 중국 선원이 숨진 것은 2010년 12월 18일과 지난 2012년 10월 16일 이후 세 번째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포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11개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해경이 무허가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압송하던 중 이를 탈취하고자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4척이 합세해 우리 해경에 흥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고 한다.

100여 명의 중국 선원들이 10명에 불과한 우리 해경과 육박전을 치르는 긴박한 상황에 해경이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발사, 그 중 한 발이 선장의 복부에 맞아 떨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단속 도중 선원들의 폭행으로 우리 해경 대원 5명도 부상을 당했다. 목포해경은

폭력을 행사한 선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00여 척에 이른다. 선원들의 저항도 전횡 더 수준이다. 단속 해경을 향해 불탄나 쇠파이프를 던지고 낚시, 손도끼를 휘두른 것도 다 반사가 됐다. 이로 인해 해경 대원 2명이 숨졌고, 부상도 끊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고를 외교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안 된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제지하는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가하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중국 측이 먼저 불법조업을 막아야 한다. 그레야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진압과정에서 잘못 대응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상생 외면 대형마트, 이젠 소비자가 나서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지역 기여도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의 지역 무시 행태는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다. 그동안 적잖게 지적된 문제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젠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새누리당 이재익 의원이 국내 대형마트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3사는 전체 상품 중 73%를 수도권에서 구매만 하면 광주·전남에서 0.5~1.2%만 구매할 것으로 변론하고 대법원 판결을 들이대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마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판사의 역할에 의문을 더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판사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판결의 주문에서부터 이유에 이르기까지 그 상세함에 있어서 판결의 존재 이유가 있고 판사만이 그 상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판결주문이나 판사 사정만을 중요시한다면 판사는 사실 인정에서부터 논증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비록 글자 하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 사용에 있어 섬세함까지 갖추어진다면 그 판결은 믿음직한 판결이다.

지역을 무시하는 대형마트들의 행태는 기부액에서도 드러난다. 이마트는 매출액 대비 광주·전남 공히 0.03%, 롯데마트는 광주 0.17%, 전남 0.11%

였고 홈플러스는 광주·전남 모두 0.01%에 불과했다. 이 결과만 봐도 대형마트들이 광주·전남 소비자를 얼마나 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파워는 유통업체를 직접 견제할 수만큼 부쩍 커졌다. 지역을 외면하고 기업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대형마트들에게 이 지역 소비자의 끈끈한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 토종 기업을 키우는 일에 지역의 소비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편으로 대형마트들의 자성 역시 중요하다. 당장 지역 구매나 기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역 소비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박용우 광주지법 판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해 6월이 되자 교도관에게 왜 석방하여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표현만 놓고 보면 ‘6개월’이 아닌 ‘6월’이므로 그해 6월에 석방되어야 할 터이나 일반인과 달리 법무 관련 종사자들은 의문의 여지없이 모두 ‘6월’을 ‘6개월’로 인식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6개월’이 아닌 ‘6월’이 아닌 ‘6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검사도 ‘6개월’이 아닌 ‘6월’로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법무 관련 종사자들 내에서 ‘6월’이

‘6개월’을 의미한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법률해석이다.

필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2009년 무렵 부장판사께서 형사판결 주문에 ‘6개월’이 아닌 ‘6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물어서 내 판에는 다들 ‘6월’을 ‘6개월’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 ‘6월’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지 의아하였다. 당시 시행 중인 형법에 따르면 ‘1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판사가 임의로 의미에 맞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도 되는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러 형사사건에 담당하면서 불현 듯 부장판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어떤 표현이 맞는지 궁금해 하다가 형법 제42조를 보니 그 조문에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명 ‘1개월’이 아닌 ‘1월’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여 법률의 연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2010년 4월

15일 해당 조문이 개정되면서 형법 제정 때부터 개정 전까지 옛날 조문에 ‘1월’로 되어 있던 것을 ‘1개월’로 그 표현을 바꾸었음을 알게 되었다. 형법의 개정과 함께 도로교통법 등에서도 ‘1개월’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 형법 제12조 제1항에는 ‘一月’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한 달(ひとつき)’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우리 어법에는 맞지 않으나 일본식 표현으로는 특별히 잘못이 없다.

법조문의 개정으로 이제 형사판결 주문에서 과거에 ‘월’로 표현하던 것을 ‘개월’로 표기하고 있다. ‘월’과 ‘개월’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글자 하나 가지고 따지고 들 필요가 있느냐고 핀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못 입력된 개념이 잘못된 관념과 인식을 만들고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한다. 입법자에게 일차적으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률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으나 그 책무는 입법자만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여야만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판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책무

이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섬세함의 차이에 있다. 네이버 지식인이 웬만한 법률문제는 모두 해결하여 준다. 심지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인도 법정에서 스스로 변론하고 대법원 판결을 들이대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마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까지는 판사의 역할에 의문을 더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판사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판결의 주문에서부터 이유에 이르기까지 그 상세함에 있어서 판결의 존재 이유가 있고 판사만이 그 상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판결주문이나 판사 사정만을 중요시한다면 판사는 사실 인정에서부터 논증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비록 글자 하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 사용에 있어 섬세함까지 갖추어진다면 그 판결은 믿음직한 판결이다.

기고

바른말·고운말 생활화 절실



이동범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전 광주교총회장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특히 바른말과 고운말 사용은 우리 사회를 명랑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즉 바른 언어 사용에서 바른 마음이 자라며 ‘말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때 말은 자신의 얼굴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언어 실태를 보면 욕설, 비속어, 폭설 등 폭력적 언어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

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고 언품(言品)을 지켜야 할 일부 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사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언어 오염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듣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어는 오염되어 중병에 걸려 있다. 공공언어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외래어가 차지한 가운데 의미도 불분명한 비속어가 일상생활에 추임새처럼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말과 글은 단순히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아닌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민족정신을 이끄는 출발점이며 우리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한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우리 말과 글을 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을 섞어야만 대화

가 되는 어린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듯 언어, 특히 욕설은 학생 언어의 일상이고 감정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그릇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 체험에서도 욕설을 많이 쓰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 언어 연습 실험이나 기억력 측정을 해본 결과 욕설을 많이 쓰는 그룹의 어휘력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나친 은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그들의 어휘 수준 차가 결국 두뇌 발달과 성적의 차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 언어와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화두는 ‘학교폭력’이다. 요즘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저런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욕설, 조롱, 협박 같은 언어폭력에서 시작해 물리적 폭력 혹은 그 끝에 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언어는 물리적 폭력과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생각이 말로 표현된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의 언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어과과에서 시작된 소통의 부재와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독은 여기 저기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여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이다. 공공언어, 인터넷언어, 청소년 언어 등 각 분야에서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이 사용되고 따뜻한 말과 글로 사회구성원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소통해야 한다.

교육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바른말과 고운말을 쓰도록 생활화하여 청소년의 언어가 더욱 성숙하고 순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배려를 위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전(全) 사회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가정, 공공기관, 언론,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성과 노력이 더해질 때 성숙한 언어문화와 건강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無等鼓

중학교 1학년 가을소풍 때의 일이다. 담임 선생님께서 노래 한 곡조를 뽑으셨다. “아~아~ 악악새 슬피우니 가을이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가수 고복수(1911~1972) 선생의 대표작 ‘찍사랑’이다.

갓 사춘기에 접어든 까까머리들이 지금 짐작으로 50대 중반쯤 됐을 선생님이 부르시는 가요의 찍사랑이나 가을의 의미를 어찌 제대로 알랴. 그렇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주 조정단 소나무숲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가을 첫 소절만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오악새”에 대해 악새의 경기도 방언이라는 의견과 왜 가리 또는 소쩍새라는 의견 등 해석이 분분하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가을을 정취에 맞게 악새에 방점을 찍는다.

일반인들에게는 악새와 갈대의 구분도 헷갈린다. 쉽게 얘기하면 산에서 자라는 것은 악새, 물가에서 자라는 것은 갈대이다. 그런데 지금껏 악새를 갈대로 불러온 까닭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양과 서식지가 다른데도 잘못된 이름을 불러온 것이다.

갈대는 유약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프랑스 사상이 판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고, 신경림 시인도 시 ‘갈대’에서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 것을/ 그는 몰랐다.”고 표현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갈대와 역새로 널리 알려진 곳에 행락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무등산 장별재와 장천관산 역사군락지가 일품이다. 순천만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 갈대축제도 열린다.

주말에 시간을 내 악새밭을 찾아 가을 햇살 속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고 싶다. 저무는 석양빛에 출렁이는 은빛 물결 속에 서적하는 일세의 노래.

지금이라면 중1 선생님이 맞춰 같이 ‘찍사랑’을 불러주련만... 중년의 제자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가만히 읊조린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